『傷寒論條辨』의 구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Shanghanluntiaobian(傷寒論條辨)

안진희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 한의학과전연구소
Ahn Jin-hee :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Institute of Korean Medical Classics

I. 序論

『傷寒論』은 太陽病, 陽明病, 少陽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의 六經病이 주된 증기를 이루고 있지만,太陽病을 다루는 내용중에 少陰病을 치료하는 處方が 나오거나, 少陰病을 다루는 내용중에 陽明病을 치료하는 處方が 나오는 등 조문의 내용이 일관된 條理를 가지고 정리되어 있지 않아 초학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온다. 當然 方有執이 이러한 혼란이 王叔和의 擴散을 成就위해의 注釋 등 후세들의 改變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그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傷寒論條辨』을 지었다. 본 논고에서는 王叔和가 편찬한 藝本『傷寒論』과 方有執이 편찬한『傷寒論條辨』의 목록을 서로 비교하여 方有執이 어떤 식으로 기존의『傷寒論』編制를 새롭게 구성했는지 살펴보고, 結論重訂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몇몇 조문들에 이동·추가·삭제·합병, 분리를 통해 方有執이 어떻게『傷寒論』의 條理를 세워 나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I. 本論

1. 王叔和가 편찬한 藝本『傷寒論』과 方有執이 편찬한『傷寒論條辨』의 목록 비교

方有執은 王叔和가 편찬한 藝本『傷寒論』이 異序錯亂함으로 그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傷寒論條辨』을 지었다. 다음은 王叔和가 편찬한 藝本『傷寒論』의 목록과 方有執이 편찬한『傷寒論條辨』의 목록을 서로 비교한 표(Table1)이다.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六經病脈證幷治를 중심으로 앞뒤에 있던 續制가 변화하였는데 그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王叔和가 편찬한 藝本『傷寒論』의 목록에서는 六經病脈證幷治 앞에『辨脈法』과『辨證法』이 있던데, 方有執은 이를 六經病脈證幷治 뒤쪽에 배치하였다. 둘째, 王叔和는 藝本『傷寒論』에서는『傷寒例』를 六經病脈證幷治 앞에 두었는데, 方有執은『傷寒例』를 仲景의 말이 아니라 후기의 僑書로 보고 僑書는 실용을 수 없으며 醫師獨創해야 한다고 보고 삭제하였다. 대신 제8권 뒤에『別傷寒例』항목을 두어『傷寒例』를 삭제하게 된 염두를 설정하였고, 후속들이 그 염두를실현 수 있게 하였다.셋째, 王叔和는 藝本『傷寒論』에서는『辨脈證的脈診』을 六經病脈證幷治 앞에 두었는데, 方有執은 이를 六經病脈證幷治 뒤쪽에 배치하였다.넷째, 王叔和가 사용한 六經病, 鬱亂病, 陰陽病, 無可脈診幷治의 편평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 조문들 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문들에 배치하였고, 특히 太陽病篇의 上中下는 風傷寒, 風傷風, 風寒兩傷等 즉 上中下의 脈診을 기준으로 조문들을 재배치하였다. 다섯째, 王叔和는 藝本『傷寒論』에는 없었던『辨脈證的風溫雜病脈診幷治』을 새로이 설정하여 傷寒論에-gl風溫・風濕 및 臨床假熱・真熱假寒・宿食 등의 難病을 다루었다.

2. 結論重訂의 방법

方有執은 王叔和의 藝本『傷寒論』이 異序错乱되었기로 인식한 뒤,『傷寒論』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傷寒論條辨』을 썼다.方有執은 藝本『傷寒論』의 조문을 본인이 새로운 條理에 따라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에

<table>
<thead>
<tr>
<th>方有執이 편찬한</th>
<th>方有執이 편찬한</th>
</tr>
</thead>
<tbody>
<tr>
<td>藝本『傷寒論』목록</td>
<td>『傷寒論條辨』목록</td>
</tr>
</tbody>
</table>

133
<table>
<thead>
<tr>
<th>1절</th>
<th>제1면  제2면  제3면  제4면  제5면  제6면  제7면  제8면  제9면  제10면  제11면  제12면  제13면  제14면  제15면  제16면  제17면  제18면  제19면  제20면</th>
</tr>
</thead>
<tbody>
<tr>
<td>1절</td>
<td>傷寒論條辨序  傷寒論條辨前序  傷寒論條辨引  傷寒論條辨治  傷寒論條辨治  傷寒論條辨治  傷寒論條辨治  傷寒論條辨治  傷寒論條辨治  傷寒論條辨治  傷寒論條辨治  傷寒論條辨治  傷寒論條辨治  傷寒論條辨治  傷寒論條辨治  傷寒論條辨治  傷寒論條辨治  傷寒論條辨治  傷寒論條辨治</td>
</tr>
<tr>
<td>2절</td>
<td>辨太陽病脈證併治法上篇</td>
</tr>
<tr>
<td>3절</td>
<td>辨太陽病脈證併治法中篇</td>
</tr>
<tr>
<td>4절</td>
<td>辨太陽病脈證併治法下篇</td>
</tr>
<tr>
<td>5절</td>
<td>辨陽明病脈證併治法</td>
</tr>
<tr>
<td>6절</td>
<td>辨少陰病脈證併治法</td>
</tr>
<tr>
<td>7절</td>
<td>辨太陰病脈證併治法</td>
</tr>
<tr>
<td>8절</td>
<td>辨少陰病脈證併治法</td>
</tr>
<tr>
<td>9절</td>
<td>辨厥陰病脈證併治法</td>
</tr>
<tr>
<td>10절</td>
<td>辨厥陰病脈證併治法</td>
</tr>
<tr>
<td>11절</td>
<td>辨溫病脈證併治法</td>
</tr>
<tr>
<td>12절</td>
<td>辨霍亂病脈證併治法</td>
</tr>
<tr>
<td>13절</td>
<td>辨陰陽易差後病脈證併治法</td>
</tr>
<tr>
<td>14절</td>
<td>辨不可發汗病脈證併治法</td>
</tr>
<tr>
<td>15절</td>
<td>辨不可發汗病脈證併治法</td>
</tr>
<tr>
<td>16절</td>
<td>辨不可發汗病脈證併治法</td>
</tr>
<tr>
<td>17절</td>
<td>辨不可發汗病脈證併治法</td>
</tr>
<tr>
<td>18절</td>
<td>辨不可發汗病脈證併治法</td>
</tr>
<tr>
<td>19절</td>
<td>辨不可發汗病脈證併治法</td>
</tr>
<tr>
<td>20절</td>
<td>辨不可發汗病脈證併治法</td>
</tr>
</tbody>
</table>
서 조문을 이동·추가·삭제·합병·분리하였다. 다음은 조문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1) 傳文의 이동

方有執은 舊本「傷寒論」의 조문을 본인이 새롭게 간편화할 과정에서 이 篇에 조속되어 있던 조문을 자 篇으로 이동시키거나, 한 篇 내에서 앞뒤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등 조문의 형태 순서를 조정하였다. 조문 이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제9권제20편 | 辨不可下病脈證幷治法 |
| 제21편 | 辨可下病脈證幷治法 |
| 제10권제22편 | 辨發汗吐下後脈證幷治法 |

Table 1. Comparison of table of contents between Wang Shu-he’s old edition Shanghanlun and Fang You-zhi’s Shanghanlunliao bian

011. 病人身大熱，反欲得衣者，熱在皮膚也。寒在骨髓也。身大寒，反不欲近衣者，寒在皮膚，熱在骨髓也。 ①)
(「辨證病風濕篤病脈證幷治」巻上) ①) 「病人生大熱，反欲得衣者，熱在皮膚，寒在骨髓也。身大寒，反不欲近衣者，寒在皮膚，熱在骨髓也。」 ②)
(「辨證病風濕篤病脈證幷治」巻中) ②) 「病人生大熱，反欲得衣者，熱在皮膚，寒在骨髓也。身大寒，反不欲近衣者，寒在皮膚，熱在骨髓也。」 ③)
(「辨證病風濕篤病脈證幷治」巻下) ③) 「病人生大熱，反欲得衣者，熱在皮膚，寒在骨髓也。身大寒，反不欲近衣者，寒在皮膚，熱在骨髓也。」 ④)

王叔和가 편찬한 舊本「傷寒論」에는 이 조문이「辨證病風濕篤病脈證幷治」巻上篇열한 뒤에 위치하였는데, 方有執은 病風濕篤病을 다룬 조문들을 따로 쓰는「辨證病風濕篤病脈證幷治」에 위치시켰다. 王叔和가 편찬한 舊本「傷寒論」에는 10조「風寒表裏和而合者」 열두 조「病人生大熱，熱在骨髓也。」 문장이 나와 문장 상호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方有執은 11조「病人生大熱，熱在骨髓也。」 문장이 나와 문장 상호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方有執은 11조「病人生大熱，熱在骨髓也。」 문장


135
장은 "辨論病風濕雜病脈證井治"에 배치시켰다. 11조 조문은 資寒假熱證과 假熱假寒證을 다른 조문으로方有執이 "辨論病風濕雜病脈證井治"에서 이 조문들을 따로 다룬 것은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王叔和가 편찬한 簡本 한방은 10조와 11조 사이의 연계성이 없어지는데, 方有執이 "傷寒論"의 雜病類證을 따로 모아서 다루고 실제의 病熱과 관련한 조문들을 다른 조문들 가운데에 이 조문을 배치시킴으로써 조문간 조문사이의 연계성을 높였다. 여기에서 "傷寒論"조문들은 좀 더 계통적으로 파악하려면 方有執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331. 傷寒先厥，後發熱而利者，必自止，見厥復利. ⑤
332. 傷寒始發熱六日，厥反九日而利。凡厥利者，當不能食，今反能食者，恐為除中，食以索饂，不發熱者，知胃氣尚在。必爾，恐暴熱來出而復去也，後日脈之，其熱續在者，期之且日夜半愈。所以然者，本發熱六日，厥反九日，復發熱三日，變前六日，亦為九日，與厥相應，故期之且日夜半愈。後三日脈之，而脈數，其熱不罷者，此為熱氣有餘，必發癲瘓也。 ⑥
333. 傷寒，脈遲六七日，而反與黃芩湯併其熱，脈遲為寒，今與黃芩湯，復除其熱，腹中應冷，當不能食，今反能食，此名除中，必死。 ⑦
(「辨論病風濕雜病脈證井治」二) 傷寒，脈遲六七日，而反與黃芩湯併其熱，脈遲為寒，今與黃芩湯，復除其熱，腹中應冷，當不能食，今反能食，此名除中，必死。 ⑧
(「辨論病風濕雜病脈證井治」四) 傷寒始發熱六日，厥反九日而利。凡厥利者，當不能食，今反能食者，恐為除中，食以索饂，不發熱者，知胃氣尚在。必爾，恐暴熱來出而復去也，後日脈之，其熱續在者，期之且日夜半愈。所以然者，本發熱六日，厥反九日，復發熱三日，變前六日，亦為九日，與厥相應，故期之且日夜半愈。後三日脈之，而脈數，其熱不罷者，此為熱氣有餘，必發癲瘓也。 ⑨
(「辨論病風濕雜病脈證井治」八) 傷寒先厥，後發熱而利者，必自止，見厥復利。 ⑩

方有執이 "傷寒論"에는 331조 "傷寒先厥，後厥復利."문장 다음에 332조 "傷寒始發熱六日，厥反九日而利."와 333조 "傷寒脈遲六七日，必發癲瘓."문장과 333조 "傷寒脈遲六七日，必發癲瘓."문장이 나오는데, 方有執은 이들 332조 → 333조 → 331조 순서로 쓰게 배치하였다. 그 외로도 고찰해보면 333조 문장 내에서 除中이 두면인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32조에서는 음어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腎風除中"이라고 했는데, 333조에서는 呼吸가 멈겨 앉아서 가는 때에 도리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除中의 정의와 病機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方有執은 333조를 332조보다 먼저 배치한 것으로 사료된다. 方有執은 333조에서 除中의 정의와 병기를 설명한 뒤, 332조에서는 發熱했다가 病症이 나타나면서 除中이 의심되는 중상과 진단 除中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는 방법, 喬과 病의 시간이 같으면 음양이 평형을 이루지 못하게 됨과 發熱이 계속되면 病機이 발생함에 대하여 말하였고, 331조에서는 332조에서 先熱後厥했던 것과 반대되는 先厥後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은 설명하면서 先厥後熱하면 결국 阳氣가 점차로 되복되므로 下痢이 잦게 되고, 病症이 나타나면서 다시 下痢함을 말하였다. 王叔和가 편찬한 簡本 "傷寒論",에는 331조 → 332조 → 333조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方有執이 혹은 除中에 배치한 것은 이러한 흔들림이 "辨論病風濕雜病脈證井治"를 계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인다. 여기서 方有執의 상한론의 條理와 계통을 잡아가기 위해서 엿볼 수 있다.

2) 條文의 추가

方有執은 "傷寒論"조문에 근거하여 조문 내용을 재설계 추가하기도 했다. 조문 추가의 에시는 다음과 같다.

038. 太陽中風，脈浮緊，發熱惡寒。身疼痛，汗不出而煩躁者，大青龍湯主之。若脈微弱，汗出惡風者，不可服之。服之則膈逆，疏傷肉瞤，此為逆也。11)

(「辨太陽病脈證并治上」 一) 太陽中風，脈浮緊，發熱惡寒，身疼痛，汗不出而煩躁者，大青龍湯主之。若脈微弱，汗出惡風者，不可服之。服之則膈逆，疏傷肉瞤，此為逆也。以薄蔘湯救之。12)

이 조문은 脈이 미약하고 病이 나며 恶風하는 사람은 大青龍湯을 복용할 수 없고, 만약 복용하면 原逆하 고 脈傷肉瞤하는 데, 方有執은 黃仲満을 따라 薄蔘湯으로써 救한다는 여러 글자를 추구함으로써 「傷寒論」

3) 條文의 삭제
方有執은 조문 내용을 순조롭게 하기 위하여 삭제하기도 했는데, 조문 삭제의 예서는 다음과 같다.

114. 太陽病，以火熏之，不得汗。其人必躁。到經不解，必淸血，名為火邪。13)

(「辨太陽病脈證并治上」二十九) 太陽病，以火熏之，不得汗，其人必躁。到經不解，必淸血，名為火邪。14)

이 조문은 太陽病에 火의 방법으로써 발한시키게 하였으나 많은 나지 않고 변조하여 跌락을 상하여 傷血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 조문이다. 기존에 方有執은 "到經不解"에 대하여 6일이면 脈이 탁하고 7일째에 太陽經에 다시 이르렀는데도 薄氣가 풀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약이로 까득 맞춘 듯한 해석을 했는데, 方有執은 과강하게 "到經不解"에서 '解'자를 삭제하고, '到'자를 '이르다'의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의 의미로 해석하여 용법한 의사들이 火療法으로써 맑을 내어 사기를 풀려고 했으나, 한자가 縱誦하는 등 薄氣는 도리어 줄지 않았다로 해석하였다. 이는 方有執이 진전에 엮어 저지 해석을 하는 방식에서 달피하여 현실의 정황에 기인하여 仲仲의 조문을 해석하려고 했던 것을 나타낸다.

4) 條文의 합병
方有執은 두 개의 조문을 합쳐하여 하나의 조문처럼 다루기도 했는데, 조문의 내용이 연관성이 높을 경우 조문을 통합하여 하나로 다루는 것을 보다는 하나의 조문 내에서 다루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라 사료된다. 조문 합병의 예서는 다음과 같다.

021. 太陽病，下之後，脈促胸滿者，桂枝去芍藥湯主之。15)
022. 若微寒者，桂枝去芍藥加附子湯主之。16)

(「辨太陽病脈證并治上」三十八) 太陽病，下之後，脈促胸滿者，桂枝去芍藥湯主之。若微寒者，去芍藥方中加附子湯主之。17)

王叔和가 편찬한 舊本 상환론에서는 21번과 22번 조문을 따로 따로 다루었는데, 方有執은 「辨太陽病脈證并治上」 중간부분에서 하나의 조문으로 묶어서 다루었다. 21번 조문은 太陽病에 下法을 잘못 사용하여 至邪가 내陸에서 脈促胸滿의 병증이 나타날 때 桂枝去芍藥湯을 사용한 조문이고, 22번 조문은 이 중량
에 약간 恶風의 증세가 나타나 Silicon桂枝去芍藥湯에 附子를 가미한 桂枝去芍藥加附子湯을 사용한 조문으로

2015年度 大韓韓醫學端典學會 國際學術大會 論文集

두 조문을 분리시키켜 다르오는 것보다 한 조문 내에서 다루もあり중의 미미한 변화에 따라 약물을 어떻게 가
감해야 하는지 근계이기도하고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정점이 있다.

128. 問曰: 病有結絡, 有藏結, 其狀何如? 答曰: 按之痛, 寸脈浮, 關脈沉, 名曰結絡也。18)

129. 何謂藏結? 答曰: 如結胸狀, 飲食如故, 時時下利, 寸脈浮, 關脈小細沈緊, 名曰藏結, 舌上白膿滑者, 發治。19)

(「辨太陽病脈誼掛治下」二十七) 問曰病有結絡, 有藏結, 其狀何如? 答曰按之痛, 寸脈浮, 關脈沉, 名曰
結絡也。何謂藏結? 答曰如結胸狀, 飲食如故, 時時下利, 寸脈浮, 關脈小細沈緊, 名曰藏結, 舌上白膿滑者難
治。20)

또한 王叔和가 편찬한 『晉本삼한문』에서는 128번 조문과 129번 조문을 따로 따로 다루었는데, 方有執은
「辨太陽病脈誼掛治下」에서 하나의 조문으로 묶어서 다루었다. 128번 조문은 結絡을 다룬 조문이고, 129
번 조문은 藏結을 다룬 조문인데, 128번 조문에서 結絡과 藏結의 나타나는 狀이 여러차례가 음울었으므로,
따로 따로 나누어 다루기보다는 한 조문 내에서 다루는 것이 文義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5) 條文의 분리

方有執은 한 개의 조문을 두 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따로 다루기도 했는데, 이는 조문의 알약음을 띠내
용의 연관성이 허들지 않으면 중도 더 연관성이 높은 문장과 함께 배치하여 실기도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조문
분리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016. 太陽病三日，已發汗，若吐若下若溼瀉，仍不解者，此為壞病，桂枝不中與之也。觀其脈證，知犯何逆，
隨證治之。桂枝本為解肌，若其人脈浮緊，發熱汗不出者，不可與之也。常須識此，勿令誤也。21)

(「辨太陽病脈誼掛治下」五十一) 太陽病未解，脈陰陽俱停，必先發奮汗出而解。但陽脈微者，先汗出而
解；但陰脈微者，下之而解。若欲下之，宜調胃承氣湯主之。22)

(「辨太陽病脈誼掛治下」五十二) 太陽病三日，已發汗，若吐若下若溼瀉，仍不解者，此為壞病，桂枝不中
與之也。觀其脈證，知犯何逆，隨證治之。23)

(「辨太陽病脈誼掛治下」五十三) 太陽病，過經十餘日，反二三下之，後四五日，柴胡湯所在者，先與小柴
胡湯。嘔不止，心下急，鬱鬱微煩者，為失解也。興與大柴胡湯下之則愈。24)

(「辨太陽病脈誼掛治下」三) 太陽中風，陽浮而陰弱，陽浮者，熱自發，陰弱者，汗自出，奮奮惡寒，淅淅
惡風，翕翕發熱，鼻鳴乾嚏者，桂枝湯主之。25)

(「辨太陽病脈誼掛治下」四) 桂枝本為解肌，若其人脈浮緊，發熱汗不出者，不可與之。常須識此，勿令誤
也。26)

(「辨太陽病脈誼掛治下」五) 凡服桂枝湯者，其後必吐膿血也。27)

(「辨太陽病脈誼掛治下」六) 若酒客病不可與桂枝湯，得湯則?><，以酒客不喜甘故也。28)

方有執은 16조 “太陽病三日~隨證治之。” 조문 내용을 분리하여, “太陽病三日~隨證治之.”의 내용은 「辨太
三.

考察

 지금까지 이병과 백련한 本本『傷寒論』과方有執이 편찬한『傷寒論條辨』의 목록을 서로 비교하여,方有執이 어떤 식으로 기존의『傷寒論』 편찬에 주목하는지 살펴보고, 本本重訂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조문의이동-추가-삭제-합병-분리의 해석을 통해方有執이 어떻게『傷寒論』의 修繕을 세익 나갔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편찬 구성에 있어서 이병과 백련한 本本『傷寒論』과方有執이 편찬한『傷寒論條辨』의 목록을 서로 비교하여,方有執이 어떤 식으로 기존의『傷寒論』 편찬에 주목하는지 살펴보고, 本本重訂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조문의이동-추가-삭제-합병-분리의 해석을 통해方有執이 어떻게『傷寒論』의 修繕을 세익 나갔는지 살펴보았다.

III. 考察

 지금까지 이병과 백련한 本本『傷寒論』과方有執이 편찬한『傷寒論條辨』의 목록을 서로 비교하여,方有執이 어떤 식으로 기존의『傷寒論』 편찬에 주목하는지 살펴보고, 本本重訂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조문의이동-추가-삭제-합병-분리의 해석을 통해方有執이 어떻게『傷寒論』의 修繕을 세익 나갔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편찬 구성에 있어서 이병과 백련한 本本『傷寒論』과方有執이 편찬한『傷寒論條辨』의 목록을 서로 비교하여,方有執이 어떤 식으로 기존의『傷寒論』 편찬에 주목하는지 살펴보고, 本本重訂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조문의이동-추가-삭제-합병-분리의 해석을 통해方有執이 어떻게『傷寒論』의 修繕을 세익 나갔는지 살펴보았다.

 convergence, 本本『傷寒論』과方有執이 편찬한『傷寒論條辨』의 목록을 서로 비교하여,方有執이 어떤 식으로 기존의『傷寒論』 편찬에 주목하는지 살펴보고, 本本重訂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조문의이동-추가-삭제-합병-분리의 해석을 통해方有執이 어떻게『傷寒論』의 修繕을 세익 나갔는지 살펴보았다.

 convergence, 本本『傷寒論』과方有執이 편찬한『傷寒論條辨』의 목록을 서로 비교하여,方有執이 어떤 식으로 기존의『傷寒論』 편찬에 주목하는지 살펴보고, 本本重訂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조문의이동-추가-삭제-합병-분리의 해석을 통해方有執이 어떻게『傷寒論』의 修繕을 세익 나갔는지 살펴보았다.
는 方有執의 적절한 편집이다.

위어의 方有執이 錯簡重訂한 방법을 조문의 이동·추가·삭제 합併·분리 등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조문의 이동예시를 통해서는 연관성을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헤석을 잡아나가는方有執의 편집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조문의 추가예시를 통해서는 傷寒의 의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는 그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조문의 삭제예시를 통해서는 경전에 엎치어 역시 헤석을 하기보다는 현실 정황에 기하여 경전을 잉어내는 그의 실사구시적 태도를 볼 수 있었고, 합병의 예시를 통해서는 조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파악하려는 그의 태도를 볼 수 있었으며, 조문 분리의 예시를 통해서는 한 조문 내에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내용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면서 연계성이 더욱 높은 다른 조문들과 함께 모아 살피는 등 조문을 다는 그의 융통성 있는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方有執이 舊本『傷寒論』의 조문을 좀 더 밀도있게 재배치하여 체계적이고 계통적인『傷寒論』의 모습을 이루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IV. 結論

이상에서 方叔和가 편찬한 舊本『傷寒論』과 方有執이 편찬한『傷寒論條解』의 목록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方有執이 方叔和이 舊本『傷寒論』의 錯簡을 변화시킨 것은 錯簡의 이동, 추가, 삭제로 나뉘는데,『辨脈法』와『脈脈法』의 손서를 바꾸어『脈脈法』의 앞에 둔 것은 脈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피는 것을 특수한 상황을 변화시킨 것보다 우선시한 것으로 그 錯簡 이동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傷寒 병증과의 유사성을 변별하기 위해『辨脈論脈論』을 六經脈論井論위쪽에 배치한 것도 그 후의 잘 분명한 적절한 배치라고 생각한다.

2.『傷寒例』는『傷寒論』의 총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傷寒論』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方有執이 이들 후인들의 僞書로 보고 삭제한 것은 仲景의 글을 중심으로『傷寒論』의 則理를 잡아내기로는 方有執의 편집방침이며, 錯簡의 삭제와 반대로『辨脈病溫脈病脈論井論』을 추가한 것은 温病・雑病을 傷寒과 분명하게 구별하니로서『傷寒論』이 傷寒外에 温病・雑病들도 포함하는 錯簡論井論에적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方有執의 적절한 편집이다.

3. 太陽病論의 上中下는 三綱鼎立을 기준으로 재배치했는데, 이는 方有執이 六經 중 太陽經을 기준으로 六經 전체의 則理를 잡은 것으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4. 方有執은 方叔和이 舊本『傷寒論』의 錯簡을 重訂하기 위해서 조문을 이동시키거나 세롭게 추가시키거나 병여한 것을 삭제하거나 조문과 조문을 합병하거나 분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셋째로 조문 이동의 예시를 통해서는 方有執의 舊本『傷寒論』의 본래 위치에서 조문을 이동시킴으로써 비슷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조문을 배치하여 조문 상호간의 연계성을 높여서는方有執이의 편집적 정신을 살릴 수 있었다. 셋째로 조문 추가의 예시를 통해서는『傷寒論』조문 내용에 근거하여 조문을 세롭게 추가함으로써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는 그의 務物致知의 정신을 살릴 수 있었으며, 넷째로 조문 분리의 예시를 통해서는 경전에 엎치어도 역시 해석을 하는 방식에서 탐히하여 현실의 실질적인 정황에 기하여『傷寒論』経文을 임어내는 그의 實事求是 정신을 살릴 수 있었으며, 넷째로 조문 합병의 예시를 통해서는 연계되는 조문을 서로 합병하여 배치함으로써 조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구약하려는 그의 정신을 살릴 수 있었으며, 다섯째로 조문 분리의 예시를 통해서는 한 조문 내에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내용간의 연계성이 떨어지면서 연계성이 더 높은 다른 조문들과 함께 모아 살피는 등 조문을 다는 그의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5.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方有執이 舊本『傷寒論』의 조문을 좀 더 밀도있게 재배치하여 체계적이고 계통적인『傷寒論』의 모습을 이루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References


